

수목의 세계화 통한 담론 제시... '황해를 넘어서'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8월30일~10월31일 전남 일원서 수목 뿌리·역사·가치·흐름 망라 한중일·중아시아 작품기법 소개 "황해 르네상스" 꽃피우는 플랫폼

수목을 통해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동시대를 관통하는 다양성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전시가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20일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제4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오는 8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63일간 목포문화예술회관, 진도 소전미술관·남도전통미술관, 해남 고산윤선도박물관, 땅끝순례문학관 등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황해를 넘어서-Somewhere Over the Yellow Sea'다.

이번 주제 선정은 지구상에 거주하는 70억 인류가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돼 순수한 문화적 주체는 존재할 수 없고 전통적인 중심과 주변의 구분 역시 무의미해진 현실에서 시작했다. 주제에서 말하는 '황해'는 국가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무력화된 중립적이고 탈 영토 문명의 바다로, 중국 중심의 대륙문명권이 아닌 한국과 일본,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민족들이 수천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인

류 보편 문명의 공간이다.

이는 '타자로서의 서구'뿐만 아니라 '타자로서의 중국'마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수목'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중심'을 해체하는 게 아닌 '다양한 중심'의 부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을 뜻한다.

유럽의 지중해(mediterranean)문명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둘러싸인 바다를 매개로 기독교, 정교, 이슬람이라는 인류 보편의 문명을 이룩했다. 한중일 3국과 인도, 중앙아시아의 민족 혼합 문명을 강조해 '동북아시아중해문명(東北亞地中海文明)'이라고 불리는 황해문명 또한 서로 다른 위상과 역할의 핵들이 모인 다핵(多核)체계이자, 대륙뿐만 아니라 바닷길로 연결된 유동적인 구조로서 동아시아 문명을 제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이런 관점을 접목해 △수목의 뿌리와 근간 △수목의 줄기와 확장 △수목의 글로벌화 등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한다.

첫 번째 섹션인 '수목의 뿌리와 근간'은 해남 고산윤선도박물관에서 공재 윤두서의 작품을 중심으로 수목의 뿌리와 근간을 확인하고, 그 가치를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고의 수목 巨匠 전'과 땅끝순례문학관에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 수목의 흐름을 살펴보는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두 번째 섹션인 '수목의 줄기와 확장'은 진도 소전미술관에서 채색수목 작품을 통해 한국, 중국, 인도의 다양한 수목 작품의 기법과 역사, 흐름을 통합적 관점으로 구성하는 '수목의 확장: 채색 수목'을 보여준다. 남도전통미술관에서는 소치에서 출발해 한국 근현대 수목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화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수목의 줄기와 갈래를 확인할 수 있는 '채움과 비움: 여백의 미'를 감상할 수 있다.

세 번째 섹션인 '수목의 글로벌화'는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영상 작품 등 역동성을 강조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수목의 여러 유형과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자연과 움직이는 수목'으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수목의 역사와 비전이, 작은 호흡에서 시작해 큰 울림으로 확산되는 나팔관의 모양처럼 수목의 뿌리, 줄기, 세계화가 하나의 이미지로 집약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전남도립미술관에서 'BLACK(가제)'이라는 주제로 녹우당(해남), 윤림산방(진도)에서 출발해 유럽의 대가들인 프란츠 클라인, 피에르 솔라주까지 연결된 수목의 미학을 탐색하는 특별전도 개최된다.

이 밖에도 도민들의 참여

분위기 제고와 지역문화진흥 및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시군 수목기념전'과 함께 미술계 주요인사, 개막식 주요 내빈 등을 대상으로 '프리뷰 운영', 대형 한지를 활용한 '수목 퍼포먼스' 등 다양한 연계 및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윤재갑(56)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은 "올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적 협력으로 연결된, '21세기 환황해 문화벨트'를 꿈꾸고 있다"면서 "동아시아 문명의 '황해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인류 보편 문명으로서 수목을 통해 담론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시"라며 "회를 거듭해 가면서 콘텐츠의 고도화와 세계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전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ARTOnO 아트페어, 인사아트센터 수목특별전시,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및 영호남 화합대추전 홍보관 운영, SNS 월별 이벤트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올해도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찬기자 chan.park@jnilbo.com



전남대학교박물관, 박한빛 작가 초대전

"설 연휴, ACC 인기 공연 집에서 즐기자"

'빈 공간: 존재하지 않는 것' 주제 내달 20일까지 대학역사관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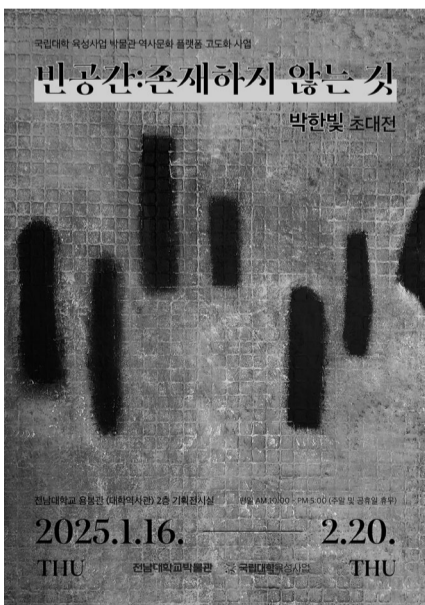
전남대학교박물관이 박한빛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전남대 박물관은 다음달 20일까지 대학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빈 공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로 박한빛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박한빛 작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일상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화면에 포착해 내는 작품들로 유명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묵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영감을 받아 추상적이고 조형적인 요소로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빈 공간'을 표현한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여기서 '빈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백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공허함,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장소이다. 화면에 반복되는 사각형



과 원형의 '빈 공간'들은 살면서 놓친 작은 순간들이나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했던 시간들을 상징한다.

정금희 전남대박물관장은 "여백처럼 보이지만 작은 공간들의 집합체인 캔버스에서 각자 고유한 '빈 공간'을 찾아 존재의 의미와 마주하는 체험과 공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유튜브서 '설날은 ACC와 함께' 음악극·어린이극·연극 등 상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설 연휴를 맞아 25~30일 ACC 유튜브 채널에서 '설날은 ACC와 함께'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ACC는 지난 2020년부터 명절 기간 ACC 우수 공연을 가족과 함께 집에서 편히 볼 수 있도록 공연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영하는 'ACC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상영되는 영상은 △춤과 노래로 그려낸 '마디와 매듭' △어린이극 '달을 묻을래' △빨간 오니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 △ACC SF 시리즈 '대리된 존엄' △아시아 콘텐츠 시범공연 '사사로운 사서' 등 6종이다.

'마디와 매듭'은 동지와 하지, 13절기 안에서 희로애락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린 2022 ACC 아시아 스토리창제작 공연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인도의 창작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달을 묻을래'는 마을 화장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강요당하는 침묵을 깨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고자 하는 '라티카'의 이야기를 다룬다. 어린이극의 특성에 맞게 통통 튀는 대사와 배우들의 움직임, 인도 느낌이 물씬 나는 춤과 노래가 관심을 이끈다.



25~30일 ACC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하는 '설날은 ACC와 함께'에서 상영되는 창작극 공연 '마디와 매듭'. ACC 제공

동양의 안데르센으로 불리는 하마다 히로스케의 원작을 재창작한 작품 '빨간 오니'는 빨간·파랑 도깨비가 주인공이다.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빨간 오니의 엉뚱하고도 기발한 노력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사랑, 다양성에 대해 이해해 볼 수 있는 어린이극이다.

한국과 아시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은 '2023년 춘천인형극제'에서 작품상(BEST3)을 수상한 바 있다. 다양한 집의 형태를 팝업북과 종이예술로 담아낸 어린이 공연이다.

2024 ACC SF 시리즈 '대리된 존엄'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자녀를 갖는 것이 당

연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대리모 산업의 한가운데 성실한 소녀 엘리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실험적인 서사를 통해 불평등 속에서도 대리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란 가능한 것인지 사유한다.

공공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연극 '사사로운 사서'는 '2024 ACC 아시아 콘텐츠 시범공연'으로 무대에 올랐던 작품이다. 도서관 장서들이 침수 사태를 겪으며 회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설날은 ACC와 함께'에 남동 공연을 편성해 오디오북처럼 들으면서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박찬기자

Logo for @jnilbo (전남일보) with social media handles and a QR code.